

기고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고의 안전

작고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이 바로 그 예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충격이나 고온·과충전 상황에서는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나 급격히 발열하고,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OO지역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 내부까지 번져 큰 재산 피해를 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정품 충전기 사용 - 값싼 호환 충전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 부족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충전 중 무방비 방치 금지 -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충전하거나, 취침 중 충전은 매우 위험하다. 코드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 피하기 - 배터리는 여름철 차량 내부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충격·변형 배터리 사용 금지 -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충전 중 가연물 주변 정리 - 주변에 이불·종이·옷가지 등이 있으면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 후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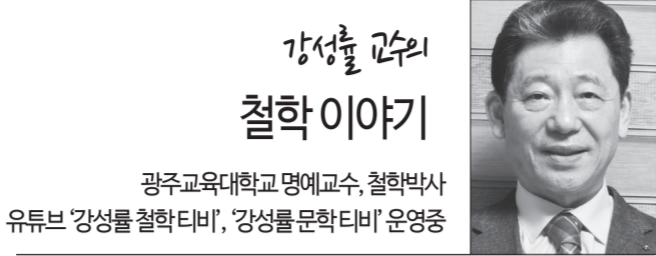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점검해야 생활 속 편리함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곽민기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1856년~1939년)는 히스테리(몸이 마비되거나 잠깐 정신을 잃음, 자주 잊어버림 등) 환자를 관찰하면서 연구를 계속하였고 이후 최면술, 카타르시스(불안, 우울, 긴장 같은 억눌린 감정이 풀리는 것) 및 자유연상법 등에 관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분석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로써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꿈의 해석』,『정신분석 입문』 등이 있다.

40대 시절의 프로이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느끼는 한편, 어렸을 적 따뜻하고 포근하고 매력적이기까지 했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과 함께 심지어 '성적 감정'까지 느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인데,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본능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어렸을 적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사랑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를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엮어 그 유명한 책『꿈의 해석』을 출판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꿈이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재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열 철학티비', '강성열 문학티비' 운영중

자녀 잃은 슬픔-프로이트

기 위해 꾸는 것이라 주장했는데, 예컨대 꿈속에서 황제(돈)를 하거나 몽정(사랑)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프로이트는 꿈을 통하여 저 아래 깊숙이 감추어졌던 우리의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때문에 인간의 정신 과정을 빙하 덩어리에 비교했을 때, 무의식은 물속 아래에 잠긴, 그래서 밖으로 나온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로 '무의식'을 지난날의 심리학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 결국 이 '무의식 세계'의 발견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최대 업적이 되었다.

1930년, 프로이트는 심리학과 독일어 문학에 기여한 공으로 '괴테상'을 받

았다. 그러나 3년 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프로이트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많은 책들이 불태워지고 말았다. 1938년 3월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다음에는 프로이트가 살던 집에 비밀경찰이 들이닥쳐 책과 재산 모두를 빼앗아갔다. 이에 프로이트는 '자유롭게 죽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노인이 된 프로이트는 손자를 잃는 아픔을 겪고 만다. 더욱이 그는 그 무렵, 담배를 많이 피운 탓에 턱에 암이 생겨 서른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을 만큼 너무나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와중에 사랑하는 손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을까? 이때 그는 목을 놓아 통곡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체 생애를 통하여 이때뿐이라고 한다.

어떻든 턱 수술을 받은 뒤에도 그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이토록 건강이 호전되지 않은 것 역시 손자로부터 온 충격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손자 루시안 프로이트는 현대 미술시장에서 최상위의 화가로 손꼽혀 왔다. 평생 할아버지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그는 자화상을 비롯해 발거벗은 알몸을 즐겨 그렸으며, 그림 속의 살코기 같은 몸을 통해 인간의 동물적인 면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그의 누드화 '베너피츠 슈퍼바이저 슬리핑'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 작가로서 최고가(약 350억 원)에 낙찰이 되었고, 2013년「루시안 프로이트에 대한 세 가지 습작」은 경매 사상 최고가(약 1,528억 원)를 경신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응급의 수호자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을 근절해달라 당부한다.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존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구급 현장에서 대원

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해·자해·자살 등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력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응급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에 진도소방서는 대원들이 안심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자동 신고·경고 장치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 방검 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폭행 위험이 예상되는 출동에는 경찰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도 운영 중이다.

한편 구조·구급 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철 진도소방서장은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 협조와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권동주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음력 9월 21일)

Grid of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for various signs including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